



금융위원회

보도설명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3. 1. 19.(목)
담당 부서	금융정책국	책임자	과 장 변제호 (02-2100-2830)
	금융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김종식 (02-2100-2824)

부동산 PF 대주단 협의체 재가동에 대한 입장

- 서울경제 1월 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- 서울경제는 1.18일 「대주단協 재가동 ... ‘30조 PF’ 만기연장」 제하의 기사에서
 - “5대 금융지주가 대주단협의체를 구성해 자금난 때문에 위태로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(PF) 대출의 만기연장과 재투자 방안을 추진” 한다면서,
 - “증권업계에 따르면 은행이 보유한 30조원(지난해 9월말 기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)의 PF 대출 가운데,
 - 고위험 사업장, 비주택, 지방 등을 제외한 27~28조원 정도로 사실상 은행 보유 PF 전액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” 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마련·집행하고 있습니다.
 - 앞으로도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대주단협의체 등 추가 정책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.
 - 이 과정에서 `09년에 마련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「PF 대주단협의체 운영협약」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.
- 다만, 同 기사에서 언급한 “30조 PF 만기연장” 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·기준·지원내용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